

## 파두카, 미국

## 파두카에서 창의성은 삶의 방식이다

파두카(Paducah)는 미국 오하이오 강과 테네시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이다. 초기 정착민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육지를 이동하면서 귀했던 직물을 재사용한 것이 퀼트라는 독특한 미국 예술 형식을 낳게 되었다. 그들이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옷이나 밀가루 자루, 음식 자루, 두건 등 모든 종류의 천 조각들은 패치워크 퀼트로 꿰메어졌다.

미국 국립 퀼트 박물관(National Quilt Museum of the United States, NQM)은 주변 세계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늘과 실로 표현한 퀼트 예술가들을 기념한다. 이 박물관은 다양한 퀼트와 섬유 예술 전시를 통해 퀼트 제작이 미국 예술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한다. 최근 전시회에서는 섬유직물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이슈들과 노력을 조명하고 있다:

- “당신의 작품을 말하십시오(Say Your Piece)-흑인 여성: 어머니, 순교자, 그리고 오해”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에 관련된 상징성과 영감이 결합된 시각적 여정으로 문화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작품이다.
- "민권 운동에 대한 찬사: 퀼팅 스윙 코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미국 시민 평등권 운동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이 스토리가 담긴 퀼트작품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통적인 퀼팅 디자인과 직조 기법을 이용하여 스윙 코트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 “섬유 애호가의 고백.” 미국 보존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Conservation)의 선임 연구원인 해롤드 메일랜드(Harold Mailand)는 인도, 독일, 영국, 미국에서 수집한 개인 소장품 중 30개의 퀼트 작품들을 공유한다.

미국 퀼트인 협회의 연례행사인 파두카 퀼트위크(QuiltWeek)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퀼트 전시회이다. 퀼트위크에는 전통적인 손바느질 작품과 재봉틀로 만든 퀼트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적으로 완벽한" 퀼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의 퀼트 애호가들이 모인다. 다양한 강좌들과 워크샵을 통해 유서깊은 전통과 과거의 직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퀼팅 기법과 최신 퀼팅 트렌드를 제공한다. 미국 퀼트인 협회는 다른 어떤 지역에보다 가장 큰 상금을 수여할 정도로 파두카의 퀼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파두카의 창의적인 문화는 교육 및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진화하여 미래로 창의성을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비영리 디지털 경제 개발 단체인 스프로킷(Sprocket)은 기업가들이 모여 새로운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국



제 경연대회를 후원한다. 경연의 우승 프로젝트와 1년간의 레지던시 지원은 농촌 건강 관리 솔루션을 연구하는 인도 출신의 창작자와 섬유 산업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려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수여되었다.

파두카의 메이든 알리 극장(Maiden Alley Cinema)은 미국에서 유일한 레즈비언 영화제인 시네마 시스터즈(Cinema Sisters)를 매년 개최한다. 레즈비언 영화제작자들의 비전과 목소리를 높이고 레즈비언 예술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가로부터 참가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2022년의 주요 영화 제작자들은 영국, 헝가리, 스위스, 독일, 남아프리카와 캐나다에서 참가하였다.

리버스 엣지 국제 영화제(Rivers' Edge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 밖에서의 활동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파두카는 2017년 영국의 창의도시, 브래드포드가 주관하는 스몰 월드 영화제(Small World Film Festival)에 참가했다. 영화제 주제는 "나의 도시(My City)"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파두카는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프로그램인 "마운틴 워크샵(The Mountain Workshops)"에서 제작한 영화를 출품하였다. 수상작 5편은 프랑스 앙기엔레뱅(Enghien-les-Bains)에서 열린 2017년 UCCN 연례 회의에서 상영되었다. 주목받은 영화는 산토스(브라질), 깬웨이(아일랜드), 나고야(일본), 브래드포드(영국), 몬트리올(캐나다), 로마(이탈리아)의 작품들이었다.

영화부문 창의도시인 브래드포드는 파두카와 계속 협력하여 리버스 엣지 국제 영화제에 심사위원을 보내주었다.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 브래드포드의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감독이 파두카를 방문해 영화축제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인구 27,000명의 작은 도시인 파두카는 자랑스럽게도 파두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합창단, 지역 실내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다. 심포니는 현재 저렴한 주택과 경제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예술과 음악을 통합하여 파두카의 창의적인 문화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던랩(Dunlap)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제튼 스쿨하우스(Jetton Schoolhouse) 안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파두카는 각각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파두카는 켄터키 서부에서 성별이나 성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성 조례를 최초로 승인한 도시이다. 도시에 있는 2 개의 주요 병원 시스템은 공평한 치료를 위해 그 시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의 우수한 학군, 2개의 지역 대학 캠퍼스,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을 가진 파두카는 양질의 교육을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파두카 시, 맥크라켄(McCracken) 주, 그리고 파두카 로타리 클럽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무료로 대학 준학사 학위(2년)를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물 밑 생활(Life Under the Water)"은 파두카가 번영하는 강의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지역 환경 보호 활동가와 단체들은 하천 시스템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토종 하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파두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일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성을 계속 활용하도록 만든다. 파두카에서 창의성은 단순한 속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Mary Hammond  
(Focal Point of Paducah)